

청소년기 애착유형에 따른 분노표현양식과 공격행동: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비교*

백 윤 미

충북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 봉 건†

충북대학교

본 연구는 청주시의 대안교육센터에서 교육수강명령을 받은 비행집단 40명과 일반 중·고교생 중 K-YSR의 외현화 문제행동척도의 상위 15%에 해당하는 위협집단 40명 및 문제행동을 보고 하지 않은 일반집단 100명을 대상으로 애착유형에 따른 분노표현양식과 공격행동의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세 집단의 연령 평균은 15.7세($SD=2.04$)였고, 총 180명을 대상으로 애착유형척도, 분노표현척도, 청소년 행동평가척도(K-YSR), 공격행동척도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비행과 관련이 깊은 애착유형과 분노표현양식 및 공격행동의 차이를 세 집단으로 구분하여 탐색하였다.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비행집단과 위협집단의 애착유형분포는 두려움형, 안정형, 무시형, 몰입형 순으로 나타난 반면, 일반집단의 애착유형분포는 안정형, 무시형, 몰입형, 두려움형순이었다. 둘째, 세 집단 간에 애착유형에 따라 분노표현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비행 및 위협집단 중 몰입형 애착유형을 지닌 청소년의 분노표현을 보이는 성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세 집단 간에 애착유형에 따라 공격행동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비행 및 위협집단에서 몰입형 애착유형을 지닌 청소년이 간접적 공격행동을 보이는 성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행과 관련이 깊은 애착유형 중 몰입형 애착유형이 외현화 행동문제와 가장 높은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을 도출하였다. 이 결과는 청소년들의 심리적 안정과 학교 폭력 및 비행을 예방하기 위해 가족 및 국가 차원에서의 조심스러운 개입이 필수적이라는 점과 청소년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치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주요어 : 청소년 비행, 애착, 분노표현양식, 공격행동

* 본 논문은 제 1저자의 석사학위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으로, 이 연구의 일부 내용은 2013년 한국임상심리학회 봄 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논문으로 발표되었음.

† 교신저자: 이봉건, 충북대학교 사회대학 심리학과, (361-763)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산 48번지
Tel: 043-261-2191, E-mail: clinpsy@chol.com

청소년의 비행은 지난 수십 년 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비행의 종류 및 양상 또한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대검찰청(2012)의 소년범죄 유형별 분포 조사에 의하면, 2011년도 소년 범죄자는 83,068명으로 이 중 재산범죄 45.7%, 폭력범죄 26.8%, 교통사범 13.9%, 강력범죄 4.0%, 저작권법 위반사범 0.4%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재 비행율도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2010년도에 비해 2011년도에 전과가 없는 소년 범죄자의 비율이 줄어 들고, 오히려 전과가 있는 소년 범죄자의 비율이 전년도에 비해 2.2% 상승하였다. 이는 청소년의 비행이나 범죄가 어린 시절의 한 차례의 실수나 통과 의례처럼 끝나지 않고 지속되어 성인기에 접어들면서 전문적인 범죄자로 발전할 가능성이 더욱 더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이동원, 2003). 이와 같이 청소년의 비행이 점차 저연령화, 반복화, 집단화되고 있고(이재현, 이상철, 2008), 범행 내용도 흉포화 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송지영, 2010).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고 재범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한 적절한 대처가 절실히 필요하다.

청소년 비행을 설명하고자 하는 노력들은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다. 이 때문에 청소년 비행의 원인은 주로 개인의 심리적 특성과 가족구조적 변인 등을 중심으로 분석되었다.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심리적 특성에는 낮은 자아존중감 또는 부정적 자아개념(이동원, 2004; 이은주, 2002), 공격성과 충동성을 포함하는 낮은 자기 통제력(민수홍, 2002), 정서적 자율성 및 부적응성(정진경, 오경자, 문경주, 조아라, 2005), 비행성향(또래 응집력, 비행친구, 비행인성) 등과 같은 성격적인 특성(김선남, 1994) 등이 포함된다. 가족적 요인에는 가정폭력경험(김정옥, 박경규, 2002), 가족구조결손(신혜섭, 2005), 부모의 양육태도(김재희, 주은선, 2002) 등이 포함된다.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시기의 청소년들은 욕구과잉, 정서적 불안

정, 반사회적 태도 등과 같은 발달적 특징과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른 핵가족화 현상, 입시위주의 학교교육, 경쟁에 따른 좌절감과 같은 사회적 환경은 청소년 비행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된다.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청소년의 비행 및 문제행동은 한 가지 요소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심리적 특성과 사회적 및 환경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이론을 중심으로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일찍이 기존의 연구에서 애착이 청소년의 비행과 문제행동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기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비행의 특성과 애착 유형과의 관계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애착은 자신과 특정 개체 사이에 형성되는 지속적인 정서적 유대로서, 평생을 통해 형성되고 지속 유지된다는 전 생애적 관점을 취하고 있다(Bowlby, 1958). 특히 생후 초기 주요 양육자와 아동의 관계는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서 최초로 맺는 사회적 관계로서, 이러한 관계를 이후 아동기와 청소년기,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성격발달과 적응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Seo, 2005). Bartholomew와 Horowitz(1991)는 초기 양육자와의 애착이 자기와 타인에 대한 신념으로 재조직되어 후속발달의 영향을 준다는 Bowlby(1979)의 이론을 바탕으로 어린 시절의 애착관계 경험은 개인의 인지, 정서, 행동을 총괄하는 내적 표상으로 작동한다고 보았다. 이들은 이러한 정신적 표상을 자신과 타인에 대한 두 개의 축으로 나누어 각각에 대해 어떠한 표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애착유형이 나누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모델에 따르면 첫째,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타인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안정형(Secure)은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이라 여기고 타인을 접근 가능하고 반응적이라고 기대한다. 둘째, 자신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지각하지만(낮은 애착불안), 타인은 부정적으로 지각하는(높은 애착회피) 거부형(dismissing)은 타인을 신뢰할 수 없고 자기 이외에 다른 사람들을 거부하지만, 자

신에 대해서는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지각한다. 셋째,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지각하지만(높은 애착불안), 타인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지각하는(낮은 애착회피) 몰입형(preoccupied)은 영아 연구의 양가적 애착과 일치하며, 타인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지각하나 자신에 대해서는 무가치하거나 부정적으로 지각하며 관계에 몰두한다. 마지막으로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지각하고(높은 애착불안), 타인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지각하는(높은 애착회피) 두려움형(fearful)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무가치감과 기대수준이 낮고 친밀한 관계를 두려워하며 회피하는 특징을 보인다.

Bowlby(1973)는 안정애착과 불안정-회피 애착을 형성한 아동은 부정적인 정서반응을 적게 하는 반면, 불안정-양가 애착을 형성한 아동은 부정적인 정서반응을 높게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까지도 애착이 부정적 정서반응과 정서 조절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Sherman 등(2013)은 생후 2~12개월 된 예민한 영아를 대상으로 부정적 반응성의 발달과정에서의 애착의 역할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불안정-회피 애착을 형성한 영아는 안정애착을 형성한 영아에 비해 부정적인 정서를 낮게 보고하였고, 불안정-양가 애착을 형성한 영아가 부정적인 정서를 가장 높게 보고하였다. 이는 초기 양육자와의 애착이 부정적인 정서 자극에 대한 행동 반응에 영향을 미치고, 추후 성인의 발달과정과 정서 조절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면에서 중요한 변인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유아기에 형성된 혼란된 애착은 아동기와 그 이후 시기의 정신병리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대한 위험요소인데, 회피적 애착은 강박적, 자기애적 분열성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밝혀졌고, 양가적인 애착은 히스테리나 연극성 장애와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Schore, 2002; Slade, 1999).

Bowlby(1973)는 분노를 타인의 부정적인 애착행동에 대한 적응적인 저항반응의 일환으로

보았고, 불안정한 애착경험은 순기능적인 분노를 역기능적인 분노로 변형시킨다고 하였다. Elizabeth, Lemerise, Bridgette와 Harper(2010)는 양육자와의 애착관계에 따라 분노에 대한 인식과 분노를 표현하고 조절하는 양상이 달라진다고 주장하였다. 양육자와 안정 애착을 형성한 아동은 분노에 대하여 긍정적인 개념을 형성하고, 화가 나는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였다. 반면 양육자와의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한 아동은 분노를 조절하는 방법을 익히지 못하고, 또래 및 선생님과의 관계를 비롯하여 적응 상의 문제와 외현화 행동문제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Muris 등(2004)은 자신을 회피적 또는 양가적 애착유형으로 보고한 청소년들이 안정애착유형을 보인 청소년에 비해 분노와 적대감 수준이 높았음을 확인하였고, 청소년 애착유형이 분노와 적대감과 관련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여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문소현, 박영주(2008)의 연구에서도 불안정애착유형을 형성한 청소년들이 안정애착유형을 형성한 청소년보다 기질분노가 높았고, 또 다른 연구에서는 집착형이 분노를 많이 밖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려움형이 분노를 가장 내재화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세정, 2004). 또한 두려움 애착을 형성한 집단이 안정 애착을 형성한 집단에 비해 분노억제(anger-in)가 유의미하게 높았다(김해진, 신현균, 홍창의, 2008). 불안정애착유형은 안정애착유형보다 분노를 자주 강하게 경험하고 이를 오래 지속하며, 안정형은 불안정유형에 비해 분노를 밖으로 표현하는 정도가 낮으면서 동시에 안으로 억압하지도 않는 것으로 나타나, 분노표현과 분노억압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양육자와의 애착이 분노를 인식하고 경험하는데 영향을 미치며, 애착과 분노표현 양식이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분노를 과도하게 억제하거나 표출하는 등 부적응적인 분노표현양상을 적응적인 표현양상으로 바꾸는 것은 치료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서수균, 이훈진, 권석만, 2004).

비행 청소년에게 있어, Feinder(1989)는 분노는 공격행동 및 비행의 유발인자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 이들의 적응문제로 통제되지 않는 분노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Larson, 1992). 비행에 반드시 분노가 수반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이론가들은 분노가 공격행동 및 비행행동의 주요 유발인자가 된다고 주장하였다(Feinder, 1989). Richard, Wampler와 Adam(2010)은 대안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또래 및 부모와의 애착을 연구 한 결과, 2가지의 애착 특징을 발견하였다. 이들은 가까운 주변 사람과의 관계에서 고립감(isolated)을 느끼고, 일관성이 없는 관계(disconnected relationship)를 맺는다고 하였다. Lyons-Ruth(1996)과 Van(1997) 등의 연구에 의하면, 비행청소년들은 두 가지 애착유형인 불안정 애착(insecure attachment)과 혼란된 애착(disorganized attachment)을 많이 보인다고 하였고 혼란된 애착을 지닌 청소년들이 공격성과 문제행동의 심각도가 높다고 하였다. 이들의 대인관계는 안정과 불안정을 넘나들며, 특히 양육자에게 학대 받은 아동에게 많이 보인다고 하였다(Cicchetti, 1991; Cicchetti, Toth, & Lynch, 1995; Lyons-Ruth, Repacholi, & Silva, 1991).

분노는 종종 충동적이거나 폭발적인 행동을 일으키지만, 적절한 분노표현은 사회적 관계를 유지시키거나 변화시키는데, 여러 가지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반대로 분노의 억압이나 회피는 불안, 우울, 신경증과 같은 심리적 문제의 원인이 된다(이규미, 1998). 또한 과도한 분노표현은 인간관계에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반사회적 행동을 유발시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이와 같이 분노가 제대로 표현되지 못하면 타인 및 자신을 향해 파괴적인 공격성을 보이게 되고, 대인관계에서나 자기 자신에게 많은 문제점을 발생하게 된다. Rosenstein과 Horowitz(1996)는 정신장애를 지닌 청소년의 연구에서 불안정 애착 중 몰입형 애착을 지닌 청소년이 내재화 문제와 비행과 연관되며, 거부형 애착을 지닌 청소년은 외현화

문제와 연관된다고 하였다. 옥정, 오윤희와 정현옥(2001)의 연구에서는 몰입형 애착을 지닌 청소년이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를 높게 보고하였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장휘숙, 1997)에서는 거부적-회피형 애착을 지닌 청소년 집단은 가족으로부터 소외되고 많은 외로움을 느끼는 반면, 몰입형 애착을 지닌 청소년 집단은 큰 불안과 많은 심리적 괴로움을 나타내며, 높은 수준의 정신병적 증상을 보고하여 애착양식에 따라 상이한 심리적 문제가 초래된다는 점을 밝혔다. 청소년의 부모애착과 공격성과의 관계를 살핀 박정녀와 최해림(2005)의 연구에서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보이는 아동일수록 또래에 대해 더 부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래로부터의 수용이 낮으며 공격적인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민영숙, 2006). 이와 같이 많은 연구들에서는 청소년의 부적응과 문제행동과 관련하여 애착이 중요한 변인이라는 점을 시사해주고 있지만, 어떤 애착 유형이 청소년 비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일치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청소년의 비행에 있어서 애착유형이 어떤 일관된 관련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한편 김헌수와 김현실(2001)의 연구에서는 원만하지 못한 가족관계와 가정안정도, 높은 공격성향, 반사회적 성격특성, 높은 우울 성향을 재범과 관련된 특성으로 언급하면서, 초범 시 연령이 낮은 청소년일수록 재범화되는 경향이 높음을 밝혔다. 이처럼 비행 청소년의 재범을 막기 위한 예방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비행의 초기단계에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극히 적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연구들이 보호관찰소의 비행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행되어 대안교육센터의 교육생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다. 또한 일반 청소년 중에서도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았지만, 문제 행동이나 적응의 문제로 인해 잠재된 비행의 가능성이 있는 위험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연구 또한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비행의 초기 단계에 있는 대안교육센터의 교육생과 일반 청소년 중에서 비행의 위험성이 높은 위험집단을 선별하여 세 집단 간 애착과 분노, 공격행동과의 차이를 비교분석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 집단 간 애착유형(안정형, 무시형, 몰입형, 두려움형)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둘째, 세 집단 간 문제행동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셋째, 세 집단 간 분노표현양식(분노표현, 분노조절, 분노억제)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넷째, 세 집단 간 공격행동(폭행, 간접적 공격행동, 부정성, 흥분성, 언어적 공격행동)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

비행 집단

본 연구는 소년부로 송치된 사건 중에 소년 분류심사원에 위탁되지 않는 소년 범에 대하여 청구법원으로부터 교육수강명령(상당조사제)을 받은 13~19세의 남자 청소년 4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5사례를 제외한 총 40사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비행 청소년들은 청주대안 교육센터에서 4일 과정이나 8일 과정의 전문 교육을 받으며 비행별로는 네 가지(절도비행, 폭력비행, 교통비행, 성비행)로 구분하여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최종 연구 대상에 사용된 비행 집단의 비행 유형을 살펴보면, 절도비행이 16명(40.0%), 교통비행이 10명(25.0%), 폭력비행이 9명(22.5%), 성비행이 5명(12.5%)의 순으로 절도비행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 집단과 일반집단

대전시의 중학생과 계룡시의 일반 인문계 고

교생으로, 13~19세 남자 청소년 3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위험 집단은 현재 일상생활 및 학교 적응에 현저한 저하가 있거나 법적 처벌을 받을 정도는 아니지만, 일탈행동이나 공격적인 행동 등 비행과 유사한 외현화 문제행동을 보이며, 잠재적으로 비행화 할 수 있는 집단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자기보고형 청소년 행동평가척도(이하 K-YSR)의 하위 척도 중 외현화, 비행, 공격성의 세 척도가 표준점수 60점 이상(백분위 85점)에 해당되는 자료 45사례 중 40사례를 무선표집하여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는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아동 및 청소년기 정신 병리의 위험집단을 변별할 때 Child Behavior Checklist(CBCL)상 표준점수 60점이 민감하고 타당한 분류점수였다는 것에 근거하였다(Biederman, Faraone, & Doyle, 1993; Willens, Biederman, Kiely, Bredin, & Spencer, 1995). 일반 집단은 문제행동을 보고 하지 않는 통제집단으로, K-YSR의 하위척도 중 외현화, 비행, 공격성의 세 척도에서 표준점수 55점 미만에 해당하는 자료 255사례 중 누락되거나 불성실한 응답으로 여겨지는 26사례를 제외한 후 비행 집단과 위험 집단의 2.5배수인 100사례를 무선표집하였다. 이는 비행집단과 위험집단의 사례수를 증가시키기 어려운 반면, 일반집단의 사례수를 증가시키는 것은 쉽기 때문에 본 연구의 통계적 검증력을 높이고, 일반집단의 애착유형별로 충분한 수의 표본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반집단의 표본을 더 많이 뽑았다.

측정도구

애착 유형 척도

Bartholomew와 Horowitz(1991)가 성인애착을 자신과 타인을 보는 시각이 긍정, 부정의 관점에 따라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눈 것으로 김은정과 권정혜(1998)가 변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기모델과 타인모델의 이차원적 구조를 바탕으로 한 네 범주 모델에 기초하여 구성되었

다. 자기와 타인에 대해 긍정적이고 친밀한 관계 형성에 대해 안정적인 '안정형(secure)', 자신에 대한 생각은 긍정적이나 타인에 대한 생각은 부정적이며 친밀한 대인관계 형성의 필요성을 평가절하하고 독립적인 행동을 하려는 '무시형(dismissing)', 타인에 대한 시각은 긍정적이나 자신에 대한 시각은 부정적이고 친밀한 대인관계 형성에 대한 욕구가 높고, 이에 높은 가치를 두며 상대방의 자신의 평가와 인정에 민감한 '몰입형(preoccupied)', 자신과 타인에 대한 시각이 모두 부정적이고 타인으로부터 상처를 받을까봐 친밀한 관계 형성을 회피하는 '두려움형(fearful)'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지는 4가지 문항 중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를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아주 그렇다'까지 7점 척도(1점~7점) 상에 표시하게 한 다음, 자신에게 가장 잘 해당된다고 하는 항목 한 가지만 선택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분노 표현 척도

Spielberger, Krasner와 Solomon(1988)이 개발한 상태-특성 분노표현척도(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STAXI)를 전경구, 한덕웅, 이장호와 Spielberger(1997)가 한국판(STAXI-Korean Version)으로 개발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에는 특성분노 10문항, 상태분노 10문항, 분노표현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분노표현의 하위척도인 분노표현, 분노조절, 분노억제에 해당하는 24문항만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분노를 느낄 때 나타나는 반응을 측정하는 것으로써, 각 문항에 대해 평소 일반적으로 느끼고 있는 자신의 성향을 가장 잘 기술해주는 정도를 '전혀 아니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4점 척도로 평정한다. 분노가 표현되는 일반적인 빈도수와 범위를 평정하는 것이며 점수가 낮을수록 적절한 조절을 의미한다. 분노표현척도의 신뢰도는 분노표출 Cronbach's $\alpha = .78$, 분노억제 $\alpha = .77$, 분노통제 $\alpha = .80$ 이었다.

자기보고형 청소년 행동평가 척도(K-YSR)

Achenbach(1991)가 개발한 Youth Self Report-Child Behavior Check List를 하은혜(1997) 등이 한국형으로 번안하고 표준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위축, 신경증상, 우울/불안, 사회적 미성숙, 사고의 문제, 주의집중의 문제, 비행, 공격성, 내재화, 외현화, 전체문제행동으로 모두 11개의 요인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총 119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마다 '전혀 없다.'는 0점, '가끔 보인다.'는 1점, '매우 심하다.'는 2점 등 3점 척도로 평가되며, 긍정 문항을 제외한 전체 문제행동 증후군을 합산한 총 문제행동 점수는 0점에서 202점까지이다. 자기 보고형 청소년 행동평가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63$ 에서 $.84$ 로 나타났다.

공격행동 척도

청소년의 공격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Buss와 Durkee(1957)가 개발하고 노안녕(1983)이 한국어로 번안한 BDHI(Buss & Durkee Hostility Inventory)의 3개 하위척도(공격행동, 적의성, 죄의식) 가운데에서 공격행동 척도 48문항만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척도로 채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행동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공격행동 척도의 신뢰도는 폭행이 Cronbach's $\alpha = .77$, 간접적 공격행동 $\alpha = .66$, 부정성 $\alpha = .66$, 흥분성 $\alpha = .64$, 언어적 공격행동 $\alpha = .61$ 이었다.

절차

비행집단의 경우, 연구자가 청주시의 대안교육센터에 협조를 구한 후 교육생들에게 자기보고식 설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설문지에 응답한 시간은 30분 정도 소요되었고, 연구자가 직접 수거하였다. 위험집단과 일반집단은 표본의 추출을 위하여 학교 유형을 고려하였다. 학교의 유형은 중학교 및 인문계 고등학교로 구분하였고, 전 학년을 포함시켜 대전시와 계룡시의

2개의 학교를 선정하여 협조를 구한 후 직접 방문하여 수업 시간에 학급별로 실시하였고, 설문지에 응답한 시간은 3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연구자가 직접 수거하였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2.0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하였다. 인구통계학적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교차 빈도표를 작성한 후, 카이스퀘어(χ^2)검증을 시행하였다. 집단 간 애착유형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 빈도표를 작성한 후, 카이스퀘어(χ^2)검증을 시행하였다. 세 집단 간 K-YSR의 문제행동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공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집단(비행, 위험, 일반)에 따라 애착 유형(안정형, 무시형, 몰입형, 두려움형)이 분노표현양식과 공격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분노와 공격행동 하위 요인을 종속 측정치로 하여 집단 * 애착 처치의 이원 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징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을 분석한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세 집단 모두의 평균연령은 15.7세($SD = 2.04$)였고, 비행집단은 17.2세($SD = 1.34$), 위험집단은 15.2세($SD = 2.12$), 일반집단은 15.3세($SD = 1.97$)이었다, $\chi^2(14, 180) = 89.76, p < .05$. 부의 학력수준은 비행집단이 무학(2.5%), 초졸(5%), 중졸(12.5%), 고졸(65%) 등 고졸 이하가 85%로 낮은 학력 수준에 분포되어 있으나, 위험집단(72.5%)과 일반집단(82%)은 대졸이상이 70~80% 이상을 차지하는 등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학력 수준을 보이고 있다, $\chi^2(10, 180) = 67.86, p < .05$. 모의

학력수준에서도 비행 집단은 무학(2.5%), 초졸(2.5%), 중졸(7.5%)로 고졸 이하가 85%로 저학력의 분포가 높지만, 위험집단과 일반집단에서는 대졸 이상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등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chi^2(10, 180) = 474.39, p < .05$. 사회경제적 수준에서는 비행 집단이 일반 집단에 비해 비행 집단에서 하급이 상대적으로 높은 결과를 보여, 사회 경제적 수준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chi^2(6, 180) = 18.16, p < .05$. 그 외에도 부의 직업군에 있어, 비행집단은 사무직(17.5%), 운수기사(12.5%), 없음(12.5%) 등의 순서

표 1. 인구통계학적 특징과 교차빈도분석(n=180)

	비행 (n=40)	위험 (n=40)	일반 (n=100)	χ^2
피험자연령 (평균±표준편차)				
	17.2±1.34	15.2±2.12	15.3±1.97	89.76*
부의 학력				
고졸 이하	34 (85%)	11 (27.5%)	18 (18%)	67.86*
대졸 이상	6 (15%)	29 (72.5%)	82 (82%)	
모의 학력				
고졸 이하	34 (85%)	10 (25%)	47 (47%)	44.39*
대졸 이상	6 (15%)	30 (75%)	53 (53%)	
사회 경제적 수준				
상급	2 (5%)	7 (17.5%)	14 (14%)	18.16*
중급	25 (62.5%)	27 (67.5%)	73 (73%)	
하급	13 (32.5%)	6 (15%)	13 (13%)	

* $p < .05$

로 나타나는 반면, 위험집단은 군경(17.5%), 생산직 근로자(12.5%), 사무직(10%)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일반집단에서도 군경(24%), 전문직(16%), 사무직(15%) 순으로 위험집단과 정상집단에서 부의 직업군 중 군경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chi^2(38, 180) = 79.49, p < .05$. 이는 일반 고교생의 학교가 군부대와 가까운 계룡시에 위치해 있어 군경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모의 직업군에 있어, 비행집단은 주부(38%), 판매직(10%), 상업(7.5%)의 순으로 나타났고, 위험집단은 주부(30%), 서비스직(25%), 교직(10%)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일반집단의 경우 주부(52%), 기타(13%), 교직(8%)로 나타났다. 모의 직업군에서 위험집단의 주부의 비율이 30%로 비행집단(38%)과 일반집단(52%)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chi^2(30, 180) = 62.26, p < .05$.

세 집단 간 K-YSR 문제행동 비교

세 집단의 문제 행동을 비교하기 위하여 공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징에서 집단 간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었던 변인들 중 부, 모의 학력과 경제적 수준을 공변인으로 두고 통계학적으로 통제하였다. 그 결과 모든 하위 영역인 위축($F(2, 175) = 15.46, p < .05$), 신체증상($F(2, 175) = 25.61, p < .05$), 우울-불안($F(2, 175) = 30.95, p < .05$), 미성숙($F(2, 175) = 32.17, p < .05$), 사고 문제($F(2, 175) = 23.14, p < .05$), 주의집중($F(2, 175) = 23.28, p < .05$), 비행($F(2, 175) = 83.74, p < .05$), 공격성($F(2, 175) = 85.14, p < .05$), 내재화($F(2, 175) = 31.11, p < .05$), 외현화($F(2, 175) = 102.39, p < .05$) 전체 문제행동($F(2, 175) = 76.63, p < .05$)에서 세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 중에서 외현화가

표 2. K-YSR에 나타난 집단 간 문제행동의 차이(n=180)¹⁾

문제행동	비행집단	위험집단	일반집단	F	Scheffe ²⁾
	n=40	n=40	n=100		
위축	54.62(6.18)	58.85(8.76)	52.34(4.39)	15.46*	G>D>N
신체증상	53.77(5.55)	61.80(9.93)	52.43(4.24)	25.61*	G>D>N
우울/불안	54.57(6.36)	61.25(8.36)	51.78(3.86)	30.95*	G>D>N
미성숙	53.11(4.23)	60.20(7.99)	51.81(4.03)	32.17*	G>D>N
사고 문제	53.91(5.03)	61.47(11.07)	52.25(3.87)	23.14*	G>D>N
주의집중	55.48(5.70)	57.80(6.21)	51.50(3.39)	23.28*	G>D>N
비행	59.60(7.31)	64.72(7.89)	50.52(1.62)	83.74*	G>D>N
공격성	57.94(9.33)	65.55(5.99)	50.68(1.61)	85.14*	G>D>N
내재화	51.94(8.26)	61.10(10.73)	46.83(7.38)	31.11*	G>D>N
외현화	57.17(11.06)	66.77(6.00)	44.35(5.67)	102.39*	G>D>N
전체문제행동	54.51(8.56)	64.80(8.90)	45.57(5.54)	76.63*	G>D>N

1) 표 5는 부모의 학력수준과 경제적 수준을 공변인으로 통제한 공변량분석결과로 조정된 평균과 표준편차를 가짐.

2) 사후검증결과(D=비행집단, G=위험집단, N=정상집단)

* $p < .05$

세 집단의 차이를 가장 크게 설명해주었다, $F(2, 175) = 102.39, p < .05$. K-YSR의 문제행동의 모든 하위 변인의 점수는 위험, 비행, 일반 집단 순으로 나타났으며, 위험집단의 문제행동이 가장 높았다. 이는 옥정, 오윤희, 정현옥(2001)의 연구에서 위험집단이 비행집단과 일반집단 보다 미성숙, 사고 문제, 주의집중 어려움만 높게 보고했던 결과보다, 전반적으로 더 높은 점수를 보고하였다. 따라서 현재 중·고교생의 문제행동이 과거보다 더 증가하였고,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임을 시사한다. 반면, 일반집단은 비행집단과 위험집단에 비해 낮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지만, 신체증상, 미성숙, 사고 집중의 문제에서는 비행집단과 유사한 수준으로 보고되었다. 따라서 일반 및 위험집단의 청소년들의 정서 및 행동 상의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을 시사하고 있고, 청소년의 문제 행동이 전반적인 적응 상의 문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세 집단 간 애착 유형 비교

세 집단별 애착 유형 분포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 빈도표를 작성한 후, 카이자승검증을 수행한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그 결과, 세 집단에 따른 애착 유형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chi^2(3, 180) = 17.26, p < .05$.

세 집단의 애착 유형의 분포를 살펴보면, 위험 집단에서 두려움형(fearful)이 45%로 가장 높았고, 안정형(secure)이 22.5%, 무시형(dismissing)이 17.5%, 몰입형(preoccupied)이 15%의 순으로 나타

났으며, 비행집단에서도 위와 동일한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세 집단 중 일반 집단에서 안정형(secure)이 44.4%로 가장 높은 분포를 차지하였고, 무시형(dismissing)이 21%, 몰입형(preoccupied)이 19%, 두려움형(fearful)이 16%로 나타났다.

집단 및 애착 유형에 따른 분노표현양식

세 집단의 애착 유형에 따른 분노표현양식을 알아보기 위해 집단(비행, 위험, 일반)과 애착유형(안정형, 무시형, 몰입형, 두려움형)을 독립변수로 하고, 분노표현양식(분노조절, 분노억제, 분노표현)을 종속변수로 하여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분노 조절의 경우 집단의 주효과는 유의하였으나 $F(2, 168) = 4.51, p < .05$, 애착유형에 따른 주효과와 $F(3, 168) = 0.68, ns$. 집단과 애착유형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F(6, 168) = 0.37, ns$. 분노 억제에서는 집단의 주효과와 $F(2, 168) = 16.48$, 애착 유형에 따른 주효과는 유의하였으나 $F(3, 168) = 2.84, p < .05$, 집단과 애착유형의 이원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F(6, 168) = 2.02, p < .05$. 또한 분노 표현에서는 집단의 주효과와 $F(2, 168) = 20.56, p < .05$. 집단과 애착유형의 이원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였으나, $F(6, 168) = 2.45, p < .05$. 애착유형에 따른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F(3, 168) = 0.54, ns$. 집단별 애착 유형에 따른 이원변량분석 결과를 표 4에, 분노표현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5에 제시하였다.

분노표현에서 집단 및 애착 유형의 상호작용

표 3. 집단 간 애착유형 특성 및 교차빈도분석(n=180)

	애착 유형				총계	χ^2
	안정형	무시형	몰입형	두려움형		
비행집단	12(30.0%)	8(20.0%)	4(10.0%)	16(40.0%)	40(100%)	17.26*
위험집단	9(22.5%)	7(17.5%)	6(15.0%)	18(45.0%)	40(100%)	
일반집단	44(44.0%)	21(21.0%)	19(19%)	16(16%)	100(100%)	

* $p < .05$

표 4. 집단 및 애착 유형에 따른 분노표현에 대한 변량분석표

변량원	SS	df	MS	F
집단(A)	9.68	2	4.84	20.56*
애착(B)	1.83	3	.61	2.59
집단 * 애착	3.46	6	.57	2.45*
오차	39.55	168	.23	
전체	789.42	180		

* $p < .05$

표 5. 집단 및 애착 유형에 따른 분노표현 평균(표준편차)

	비행집단 <i>n</i> =40	위험집단 <i>n</i> =40	일반집단 <i>n</i> =100
안정형	2.50(0.61)	2.39(0.44)	1.73(0.40)
무시형	2.08(0.45)	2.12(0.40)	1.72(0.40)
몰입형	2.62(0.97)	2.58(0.55)	1.84(0.38)
두려움형	1.96(0.55)	2.39(0.55)	2.00(0.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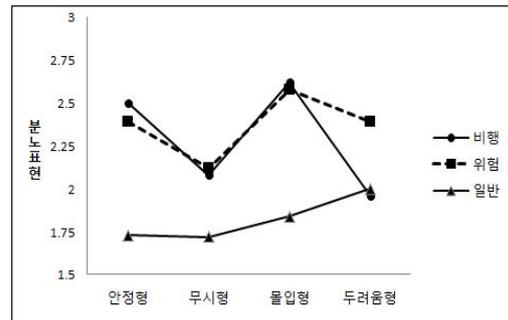


그림 1. 집단 및 애착 유형에 따른 분노 표현

효과가 유의하였기 때문에 애착유형에 따른 분노표현의 차이에 대한 단순 주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안정형의 경우, 비행집단과 위험집단이 일반집단보다 분노표현을 유의하게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2, 64) = 13.05, p < .05$. 반면, 안정형과 몰입형의 경우 일반집단은 비행집단과 위험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분노표현이 낮았다(각각 $F(2, 64) = 13.05, p < .05, F(2, 64) = 21.61, p < .05$). 무시형과 두려움형의 경우에는 비행집단과 위험집단이 일반집단에 비해 분노표현이 높았지만, 통계적인 차이는 작았다(각각 $F(2, 35) = 3.94, p < .05, F(2, 49) = .45, p < .05$). 특히 몰입형의 경우 세 집단 간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는데, 비행집단과 위험집단이 일반집단보다 분노표현을 유의하게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2, 28) = 21.61, p < .05$. 따라서 비행집단과 위험집단의 안정형과 몰입형 애착 유형이 무시형과 두려움형에 비해 분노 표현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및 애착유형에 따른 분노 표현 점수를 그림 1에 제시하였다. 그림 1에서 보는 것처럼, 비행집단과 위험집단이 일반집단에 비해 분노표현이 높게 나타났고, 애착 유형에 따른 분노표현 양상도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 다만, 비행집단과 위험 집단에서 애착 유형에 따라서는 분노 표현이 상의하다는 결과가 시사되는데, 특히 불안정한 애착 유형 중 몰입형이 분노표현에 가장 높은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집단 및 애착 유형에 따른 공격행동

세 집단의 애착 유형에 따른 공격행동을 알아보기

위해 집단(비행, 위험, 일반)과 애착유형(안정

표 6. 집단 및 애착 유형에 따른 간접적 공격행동에 대한 변량분석표

변량원	SS	df	MS	F
집단(A)	15.40	2	7.70	20.02*
애착(B)	3.80	3	1.26	3.29*
집단 * 애착	7.78	6	1.29	3.37*
오차	64.61	168	.38	
전체	1350.95	180		

* $p < .05$

표 7. 집단 및 애착 유형에 따른 간접적 공격행동(표준편차)

	비행집단 $n=40$	위험집단 $n=40$	일반집단 $n=100$
안정형	3.06(0.62)	3.28(0.59)	2.35(0.59)
무시형	2.88(0.89)	2.77(0.48)	2.26(0.51)
몰입형	3.89(0.83)	3.22(0.42)	2.37(0.37)
두려움형	2.61(0.87)	2.85(0.67)	2.72(0.59)

형, 무시형, 몰입형, 두려움형)을 독립변수로 하고 공격행동(폭행, 간접적 공격행동, 부정성, 흥분성, 언어적 공격행동)을 종속변수로 하여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폭행에서는 집단의 주효과와 $F(2, 168) = 13.69, p < .05$, 애착유형에 따른 주효과는 $F(3, 168) = 3.23, p < .05$, 유의하였으나, 집단과 애착유형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F(6, 168) = 2.08, ms.$ 부정성에서는 집단의 주효과와 $F(2, 168) = 1.63, ms.$, 애착유형에 따른 주효과 $F(3, 168) = 1.35, ms.$ 집단과 애착유형의 상호작용 효과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F(6, 168) = .41, ms.$ 흥분성은 집단의 주효과는 유의하였으나 $F(2, 168) = 18.06, p < .05$, 애착유형에 따른 주효과와 $F(3, 168) = 1.31, ms.$ 집단과 애착유형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F(6, 168) = 1.40, ms.$ 언어적 공격행동에서는 집단의 주효과는 유의하였으나 $F(2, 168) = 13.87, p < .05$, 애착유형에 따른 주

효과와 $F(3, 168) = 1.79, ms.$ 집단과 애착유형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F(6, 168) = 1.28, ms.$ 간접적 공격행동에서는 집단의 주효과와 $F(2, 168) = 20.02, p < .05$, 애착유형에 따른 주효과 $F(3, 168) = 3.29, p < .05$, 집단과 애착의 상호작용효과가 모두 유의하였다, $F(6, 168) = 3.37, p < .05$. 집단별 애착 유형에 따른 이원변량 분석 결과를 표 6에, 공격행동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7에 제시하였다.

간접적 공격행동에서 집단 및 애착 유형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였기 때문에 애착유형에 따른 간접적 공격행동의 차이에 대한 단순 주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안정형의 경우, 비행 집단과 위험집단이 일반집단보다 간접적 공격행동을 유의하게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2, 64) = 13.05, p < .05$. 반면, 안정형과 몰입형의 경우 일반집단은 비행집단과 위험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간접적 공격행동이 낮았다(각각 $F(2, 64) = 13.05, p < .05, F(2, 28) = 21.61, p < .05$). 두려움의 경우 세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F(2, 49) = .45, p < .05$, 무시형은 비행 집단과 위험집단이 일반집단에 비해 간접적 공격행동이 높았지만 통계적 차이는 작았다, $F(2, 35) = 3.94, p < .05$. 특히 몰입형 애착에서 세 집단 간 차이가 크게 시사되는데, 비행집단과 위험집단이 일반집단보다 간접적 공격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2, 28) = 21.61, p < .05$. 따라서 비행집단과 위험집단의 안정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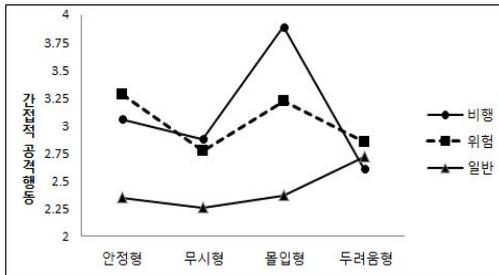


그림 2. 집단 및 애착 유형에 따른 간접적 공격행동

과 몰입형의 애착유형이 무시형과 두려움형에 비해 간접적 공격행동을 유의하게 더 많이 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집단 및 애착 유형에 따른 간접적 공격행동의 점수를 그림 2에 제시하였다. 그림 2에서 보듯이, 비행 집단과 위험집단이 일반집단에 비해 간접적 공격행동이 높게 나타났고, 비행집단과 위험집단이 애착유형에 따른 간접적 공격행동이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

즉 비행집단과 위험 집단에서 애착 유형에 따라 분노 표현이 상의하다는 결과가 시사되는데, 특히 몰입형이 간접적 공격행동에 가장 높은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논 의

본 연구는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애착 유형이 비행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들이 어떤 분포와 차이를 보이는지 각 집단 별 결과를 통해 애착의 실제 현상을 비교하고 이해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통해 각 집단 별 애착 유형의 특성을 알고, 실제 치료 시 청소년들에게 차별화된 개입을 통해 비교적 초기 단계에 있는 비행 청소년의 재범을 줄이고, 잠재된 비행의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들의 심리적인 문제를 이해함으로써, 효과적인 사회적응을 위한 발판의 역할을 하고자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었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행집단과 위험집단의 애착분포는 두려움, 안정형, 무시형, 몰입형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비행 및 위험집단 청소년들은 학교와 가정생활에서 다른 사람들과 친밀해지는 것을 피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거부하는 것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두려움형 애착을 가장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실제 대인관계 장면에서 친밀한 상호작용을 맺는데 어려움을 보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비행집단에서는 무시형과 몰입형의 애착이 50%를 차지하는 것으로 볼 때, 애착유형이 청소년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며, 청소년기의 외현화 문제행동은 몰입형 애착유형과 연관이 깊다는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연구결과로 볼 수 있다(Allen, Moore, & Kuperminc, 1998; Allen & Land, 1999).

둘째,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사회적 기대 및 규범에서 벗어난 행동과 자신이나 타인을 괴롭히는 행동으로 가정,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성장해가면서 환경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정서적·행동적 부적응이나 장애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홍경자, 1986; 최은경, 2003).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문제행동은 심리적으로 안정되지 못하여 나타나는 위축, 신체증상, 우울, 불안 등의 내재화 문제행동과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인 해를 주거나 사회적 규범을 무시하는 비행, 공격적 행동과 같은 외현화 문제행동을 포함한다(Achenbach, 1991).

본 연구에서는 세 집단 중 위험집단이 비행집단과 일반집단과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문제행동을 보였고, 이는 옥정, 오윤희, 정현옥(2001)의 선행연구에서 위험집단이 비행집단에 비해 공격성, 미성숙, 사고 문제, 주의 집중력에서만 어려움을 보였던 결과보다 청소년들의 전반적인 문제행동이 이전에 비해 심각해졌다는 실정이 시사된다. 또한 일반집단에서 신체증상과

미성숙, 사고 집중 문제에서는 비행집단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 중 고교생 중 선별한 위험집단이 비행집단보다 오히려 높은 문제행동을 보임으로써, 정서 및 행동 상의 어려움을 주관적으로 많이 호소하고 있고 심적 고통을 느끼는 청소년의 수가 과거에 비해 현저히 증가했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청소년들이 자신의 심적인 어려움이나 문제에 대해 주변으로부터 도움을 요청하기 보다는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거나 내재화 하는 경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들의 심리적인 문제에 대해 간과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문제행동에 대한 심각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때문에 일반 청소년 중 잠재된 비행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비행예방을 위한 심리치료와 예방적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세 집단의 애착유형에 따른 분노표현양식을 알아보기 위해 집단*애착 유형 간의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분노표현에서 애착유형에 따른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집단의 주효과와 집단과 애착유형의 이원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였다. 즉 세 집단의 애착 유형에 따라 분노 표현이 상의하다는 결과가 시사되는데, 특히 불안정한 애착 유형 중 몰입형이 분노 표현에 가장 높은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따라서 비행집단과 위험집단에서 자기에 대해 부정적이며 타인에 대해 긍정적인 표상을 갖고 있는 몰입형(preoccupied) 청소년들이 실제 분노가 유발하는 상황에서 타인 혹은 대상에게 부적감정을 드러내거나 과격함 공격행동을 보이는 성향이 높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애착 수준이 낮은 집단은 높은 집단에 비해 분노억제와 분노표출이 유의미하게 높다는 결과(이선주, 2011)와 문소현, 박영주(2008)의 연구에서 여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몰입형 애착유형을 지닌 청소년이 기질 분노가 가장 높고, 분노표현에서 분노억제나 분노표출과 같은 부정적인 분노표현

을 더 사용한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넷째, 세 집단의 애착유형에 따른 공격행동을 알아보기 위해 집단*애착 유형 간의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공격행동의 하위변인(폭행, 간접적 공격행동, 부정성, 흥분성, 언어적 공격행동) 중 간접적 공격행동에서 집단과 애착 유형의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였다. 즉 세 집단의 애착 유형에 따라 간접적 공격행동이 상의하다는 결과가 시사되는데, 분노표현과 마찬가지로 비행집단과 위험집단의 몰입형 애착이 간접적 공격행동에 가장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나타내고 있다.

첫째, 위험집단이 비행 및 일반집단에 비해 불안정 애착 및 문제행동을 높게 보고했다는 점이다. K-YSR에 나타난 집단 간 문제행동에서 위험집단이 비행집단에 비해 오히려 비행 및 공격성의 문제행동을 더 많이 보고하였고,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 등 전반적인 적응의 어려움을 주관적으로 많이 호소하였다. 또한 애착 유형 분포에서도 세 집단 중 위험집단이 두려움형 애착을 45%로 가장 높게 보고하였다. 따라서 위험 집단 청소년들의 불안정한 애착 형성의 문제가 청소년의 문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위험집단과 비행집단의 청소년들이 일반집단과 비교했을 때 분노조절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특히 몰입형 애착을 지닌 청소년들이 실제 분노가 유발하는 상황에서 부적감정을 드러낼 위험성이 높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셋째, 위험집단과 비행집단의 청소년들이 정상집단과 비교했을 때 간접적 공격행동이 유의하게 높았고, 분노조절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몰입형 애착을 지닌 청소년들이 나쁜 장난을 치거나 욕설을 통해 상대방을 위협하는 간접적 공격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과도한 분노는 공격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다. 따라서 몰입형 애착을 지닌 비행 및 위험 집단의 청소년이 분노표현 및 간접적인 공격행동과 유의한 관계가 있어, 몰입형 애착유형이 비행과 외현화 문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라는 결과를 밝혔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가 중요한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본 연구의 제한점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논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행집단인 대안교육센터의 교육생들에게 실시한 설문지에 관한 조사방법론적인 한계성에 관한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 보고식 설문조사(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survey assisted by supervisor)를 실시하였는데, 교육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설문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설문지를 평가 상황으로 인식하여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하여 부정적인 문항에 긍정적인 답변을 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겠다. 또한 본 연구는 면담을 통한 조사가 아니라, 자기 보고식 설문지를 실시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면담을 한다면 더욱 실질적인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본 연구는 계룡시 및 대전시에 소재한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전체 청소년으로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비행 집단의 경우, 청주시의 일부 비행청소년(상담 조사과정)만을 대상으로 하여 많은 사례수를 얻는데 한계점이 있어 위험 및 일반집단과 동일한 사례수를 얻지 못했고, 보호 관찰서 및 경찰서를 포함한 청소년들을 포함한 비행 청소년들을 일반화할 수 없었다. 또한 일반 고교생의 경우, 인구통계학적 분석에서 부의 직업군이 군인의 분포가 높았는데, 이는 계룡시의 군부대와 가깝게 위치해 있어, 군인의 자녀들의 분포가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비행

집단 및 일반 중고교생의 청소년들의 지역적인 범위를 확대하여 더 많은 사례수로 연구 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일반 중 고교생을 K-YSR의 문제행동 척도 중 비행, 공격성, 외현화의 세 가지 척도의 표준 점수가 60점 이상(백분위 85점)에 해당하는 집단을 위험집단으로 선별하였고, 표준점수 55점 미만에 해당되는 집단을 정상집단으로 선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척도만을 기준으로 위험집단과 정상집단을 선별하였지만, 추후 연구에서는 문제행동의 모든 척도(위축, 신체증상, 우울/불안, 미성숙, 사고문제, 주의집중, 비행, 공격성, 내재화, 외현화, 전체문제행동)를 사용하여 집단을 선별하는 것이 좋겠다. 또한 정상집단을 세 가지 척도의 점수가 55점 미만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선별하였는데, 이들 중 위험집단의 cut-off 점수의 경계선에 속하는 청소년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 위험집단과 혼재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위험집단과 정상집단의 선별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정상집단을 좀 더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대안교육센터의 제도적 및 정책적인 발전이다. 대안교육센터의 교육생들은 법원소년부에서 의뢰한 상담 조사계(상담교육생-법원)는 일반학교와 달리 법집행과 아울러 비행예방교육, 체험교육, 인성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나 교육이수 후 사후관리제도(청소년 동반자)를 도입하여 재범화 하는 것을 방지하고 사회와 학교에 잘 적응 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것으로 시사된다. 이와 같은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일반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자청소년을 대상으로 위험집단과 일반집단을 선별하여 연구하였고, 현재 활성화되고 있지만 선행연구가 부족한 대안교육센터의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비교연구를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위험집

단에 대한 함의이다. 위험집단이 비행집단에 비해 K-YSR을 통한 문제행동과 분노조절의 어려움 및 간접적 공격행동 등의 어려움을 높게 보고함에 따라 전반적인 적응 상의 어려움을 주관적으로 많이 호소하고 있다. 실제로 선행연구에 비해 위험집단의 문제가 더 심각해졌을 수 있지만, 비행 집단의 경우 긍정적인 인상을 주기 위해 자기 보고식 검사에서의 왜곡이 있을 수 있겠고, 비행문제의 이질성 때문에 위험집단의 문제행동이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위험집단에서의 보고한 높은 문제행동에 대해 간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사회와 지역사회 가정의 세밀한 지도와 하나의 사회적 연결고리를 만들어 이들에 대한 관심과 예방적 개입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시사해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위험집단에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위험집단이 비행집단과 일반집단에 비해 문제행동을 가장 높게 보고하였다. 이에 위험 집단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적 차원으로서 비행의 예방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가정 및 학교생활에서의 청소년들의 부적응과 비행을 예방하기 위해 건강한 인성과 도덕성을 계발하고 증진시킬 수 있는 품성계발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품성계발프로그램은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 청소년들의 도덕성 증진 및 문제의 예방을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로 하여금 훌륭한 도덕성과 품성을 토대로 자신의 건강한 자질을 잘 개발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품성계발프로그램을 실시해 본 결과, 프로그램에 참여 한 학생들이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보다 도덕적 자기개념, 학교생활 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아진 결과를 보였다(김진희, 김은영, 양미진, 2009). 또한 이회경(2009)의 초등학교생들 대상으로 한 품성계발프로그램에서는 프로그램 실시 후, 공격성이 높은 집단이 사전에 비해 사

후에 공격성이 유의하게 감소되었으며, 친사회적인 능력의 향상에 도움을 주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위험집단의 청소년에게도 건강한 인성 및 문제해결 감소를 위한 품성계발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위험 집단 청소년들은 불안정 애착 유형을 높게 보고하였다. 청소년들의 애착유형의 경우 과거에 이미 형성되어져 현재 쉽게 변화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가족 차원에서의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따라서 청소년의 부모는 부모교육을 통해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의 질을 개선하여, 부모와 자녀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부모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족 관계 회복을 위해 정기적으로 ‘힐링 캠프’를 마련하여 바깥활동을 함께 함으로써 자녀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이해하고 치유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학교장면에서는 잠재적 비행의 위험이 있는 위험집단을 선별하여, 현재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의 상담교사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위험집단의 청소년들은 학교 장면에서 문제 행동을 많이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학교 장면에서 청소년의 문제 행동을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인 심리치료와 적극적인 치료적인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여성가족부 (2012). 청소년 백서. 338-340.
- 대검찰청 (2012). 범죄분석.
- 김선남 (1994). 청소년비행 관련 변인간의 인과적 분석. 전북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박사학위 논문.
- 김은정, 권정혜 (1998). 우울증상과 관련된 대인관계 특성. 한국임상학회지: 임상, 17(1), 139-

- 153.
- 김정옥, 박경규 (2002). 청소년의 가정폭력 경험과 학교폭력과의 관계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 7(1), 93-115.
- 김재희, 주은선 (2002). 지각된 양육태도의 세대간 연구와 부적응 청소년 집단과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4(4), 1-18.
- 김진희, 김은영, 양미진 (2000). 청소년 품성개발 프로그램 개발 연구. 한국청소년상담원.
- 김현수, 김현실 (2001). 재범 비행 청소년의 예측인자 분석. 신경정신의학회지, 40(2), 279-299.
- 김해진, 신현균, 홍창의 (2008). 성인애착유형, 특성 분노 및 음주문제 관계-분노표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7(3), 729-748.
- 노안녕 (1983). 비행 청소년에 있어서 공격성과 불안 감소에 미치는 주장훈련의 효과.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문소현, 박영주 (2008). 청소년기 여성의 애착유형에 따른 기질분노와 분노표현. 여성간호학회지, 14(2), 143-149.
- 민수홍 (2002). 여자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이 비행과 범죄에 미치는 영향. 형사정책연구, 13(1), 35-66.
- 민영숙 (2006). 초등학교 5, 6학년의 애착유형에 따른 대인불안, 공격성 및 또래 관계의 관계.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정녀, 최해림 (2005). 청소년의 부·모 애착과 자동적 사고 및 공격성.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1), 249-264.
- 서수균, 이훈진, 권석만 (2004). 분노표출/분노억제 태도 척도의 개발과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3(2), 521-540.
- 송지영 (2010). 초등학교 아동의 부모애착과 친구애착이 남녀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문제행동과 비행 친구 유무의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혜섭 (2005). 가족폭력요인과 가족구조요인이 남녀 학생청소년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 가족과 문화, 17(2), 63-88.
- 오경자, 하은혜, 이해련, 홍강의 (2001). K-YSR 청소년 자기행동평가척도 실시 요강.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옥정, 오윤희, 정현옥 (2001). 청소년기 애착유형과 지각된 부모양육행동.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0(2), 259-270.
- 이규미 (1998). 청소년의 분노와 분노처리과정에서의 공격행동에 대한 체험 분석.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이동원 (2003). 소년범죄자의 재범특성에 대한 고찰: 범행의 발전양상과 재범 가능성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15(2), 335-360.
- 이동원 (2004). 비행청소년의 자아개념과 재범가능성. 교정연구, 24, 39-68.
- 이선주 (2011). 청소년의 애착수준과 애착유형에 따른 열등감과 분노표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세정 (2004). 성인의 애착유형에 따른 분노경험과 분노조절양식.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은주 (2000). 청소년 비행에 대한 자아개념과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효과. 청소년학연구, 7(1), 149-168.
- 이재현, 이상철 (2008). 청소년 비행보호요인 및 환경요인 간 상호작용이 청소년 비행위험도에 미치는 효과. 한국청소년학회: 청소년학연구, 15(1), 407-430.
- 이희경 (2009). 품성개발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공격성 감소 및 친사회성 향상에 미친 효과.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휘숙 (1997). 성인 애착의 3범주 모델과 4범주 모델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0(2), 123-138.
- 전검구, 한덕웅, 이장호, Spielberger (1997). 한국판 STAXI 척도 개발: 분노와 혈압.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1), 60-78.
- 정진경, 오경자, 문경주, 조아라 (2005).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청소년의 지각과 비행: 정서적 자율성과 행동적 자율성의 매개효과. 한국심

- 리학회지: 임상, 24(4), 755-770.
- 최은경 (2003). 청소년의 애착유형과 행동문제: 시설 집단과 일반집단의 비교. 전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홍경자 (1986). 초등학교 아동의 행동양상 도형개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Achenbach, T. M. (1991). Manual for the children Behavior Checklist/4-18 and 1991 Profile Burlington Vt University of Vermont.
- Allen, J. P., Moore, C. M., Kuperminc, G. P., & Bell, K. L. (1998). Attachment and adolescent psychosocial functioning. *Child Development*, 69(5), 1406-1419.
- Allen, J. P., & Land, D. (1999). *Attachment in adolescence*. In J. Cassidy & P. R. Shaver (Eds.), *Handbook of attachment,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pp.319-335). New York: Guilford Press.
- Bartholomew, K., & Horowitz, L. M. (1991). Attachment styles among young adults: A Test of a four-category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2), 226-244.
- Bowlby, J. (1973). *Attachment and loss: Attachment*, New York: Basic Books.
- Buss, A., & Durkee, A. (1957). An inventory for assessing different kinds of hostility.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1, 343-349.
- Cicchetti, D. (1991). Fractures in the crystal: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and emergence of self. Special issue: The development of self: The first three years. *Developmental Review*, 11, 271-287.
- Cicchetti, D., Toth, S. L., & Lynch, M. (1995). Bowlby's dream comes full circle. The application of attachment theory to risk and Psycho pathology. *Advances in Clinical Child Psychology*, 17, 1-75.
- Elizabeth, A., Lemerise, Bridgette, D., & Harper. (2010). The Development of Anger from Pre school to Middle Childhood: Expressing, Understanding and Regulating Anger, *International Handbook of Anger*, 4, 219-229.
- Feindler, E. L. (1989). A review of V. B. Van Has selt & M. Hersen(Eds.) (1987). *Handbook of adolescent psychology*. To appear in *Education & Treatment of Children*, 13(1).
- Larson, J. D. (1992). Anger and aggression management techniques through the Think First curriculum. *Journal of offender Rehabilitation*, 18 (1/2), 101-117.
- Lyons-Ruth, K., Repacholi, B., McLeod, S., & Silva, E. (1991). Disorganized Attachment Behavior in Infancy: Short-term Stability, Maternal and Infant correlates and risk-Related Subtype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3 (4), 377-396.
- Lyons-Ruth, K. (1996). Attachment relationship among Children with Aggressive Behavior Problem: The role of Disorganized early Attachment Pattern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4, 64-73.
- Muris, P., Meesters, C., Morren, M., & Moorman, L. (2004). Anger and hostility in adolescents: relationships with self-reported attachment styles and perceived parenting rearing styles.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57(3), 257-264.
- Rosenstein, D. S., & Horowitz, H. A. (1996). Adolescent Attachment and Psychopatholog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4(2), 244-253.
- Richard, S., Wampler, Adam, B. D. (2010).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 Minority Males at High Risk for Delinquency. *Clinical Social work Journal*, 38(1), 107-119.
- Seo, J. W (2005). *The relationship among mother-child attachment, ego-resiliency and peer violence experience of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mchunhyang University,

- Asan.
- Sherman, L. J., Stupica, B., Dykas, M. J, Ramos-Marcuse, F., Cassidy, J. (2013). The development of negative reactivity in irritable newborns as a function of attachment,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36(1), 139-146.
- Spielberger, C. D., Krasner, S. S., & Solomon, E. P. (1988). *The experience expression and control of anger*. In M. P. Janisse (Eds.), *Health Psychology: Individual differences and stress*.
- Van IJzendoorn, M. H., Feldbrugge, J. T. T. M., Derks, F. C. H., Ruiters, C., Verhagen, M. F. M., Philipse, M. W. G., Van der Staak, C. P. F., Riksen-Walraven, J. M. A. (1997). Attachment Representations of Personality Disordered Criminal Offenders. *American Journal of Ortho Psychiatry*, 67(3), 449-459.

1 차원고접수 : 2013. 07. 12.

수정원고접수 : 2013. 11. 27.

최종게재결정 : 2013. 11. 27.

**Anger Expression and Aggressive Behaviors as a
Function of Attachment Styles:
A Comparison between Delinquent and Normal Adolescents**

Yun Mi Paek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Bong-Keon Le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was performed to compare a delinquent group who had education in Alternative Education Center with a risk group consisting of forty middle and high students who belonged to upper fifteen percent of those with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 subscale in K-YSR and a normal group consisted of hundred students without problematic behaviors, for any difference in anger expression styles and aggressive behaviors according to their attachment types. The mean age of the three groups was fifteen point seven; at total of 180 students were measured for Attachment Style inventory,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Korean-Youth Self Report-CBCL(K-YSR) and Aggressive Behaviors scale. The major results are as following. First, attachment types of the delinquent and risk group were distributed of fearful type, secure type, dismissing type and preoccupied type from the most in order, while those of normal group were distributed of secured type, dismissing type, preoccupied type, fearful in order. Second, in a anger expression styles, about the delinquent and risk group with preoccupied type were higher anger-out than normal group. Third, in aggressive behaviors about the delinquent and risk group with preoccupied type were higher indirect aggressive behaviors than normal group. This study explored preoccupied type among attachment style,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 which have much relation with juvenile delinquency. Overall, the results suggested that risk group with possibility of potential delinquency required preventive and therapeutic intervention.

Key words : juvenile delinquency, attachment, anger expression style, aggression Behavior